

‘파죽지세’ NC 파워랭킹도 1위로 급상승

ESPN, 3주차 KBO리그 랭킹 공개
6위였던 SK 최하위로 곤두박질
9연패 염경엽 감독 “자리 위험하다”

한국프로야구 실제 순위에 따라 ESPN의 KBO리그 파워랭킹도 요동쳤다. KBO리그를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는 ESPN은 18일(현지시간) 3주차 KBO리그 파워랭킹을 공개했다. ESPN이 지난주 4위로 평가했던 NC 다이노스가 1위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6위였던 SK 와이번스가 최하위(10위)로 추락했다. 성적에 반영한 결과다. NC는 실제 10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SK는 1승 10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ESPN은 “NC는 지난주 균형 잡힌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6승을 거뒀다. 18홈런으로 이 부문 1위로, 팀 평균자책점도 3.26으로 가장 좋다”라고 설명했다. 9연패 부진에 빠진 SK에 대한 설명은 꽤 자세했다. ESPN은 “득점과 실점 차가 -37(득점 34, 실점 71)이다. SK는 엉망이다. 2018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트레이 힐만 전 감독에 이어 사령탑에 오른 염경엽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19년 시즌 막판에 크게

무너졌다. 염경엽 감독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18년 KBO리그 챔피언 SK는 지난해 정규시즌 1위를 달리다가, 두산 베어스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포스트시즌에서도 플레이오프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패했다. 올해는 시즌 초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주에는 6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2주 연속 파워랭킹 1위를 지키던 키움은 2위로 내려갔다. ESPN은 “지난주 1승 4패에 그친 키움의 파워랭킹 순위가 한 계단만 떨어진 건,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 썼다. 키움의 반등을 예상하는 낚임이다. 두산도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ESPN은 “두산은 득점(82개)과

타율(0.337) 1위다. 반면, 평균자책점은 6.24로 가장 높다”고 투타 불균형을 지적했다. LG 트윈스는 한 계단 내려간 4위로 평가받았고, 롯데 자이언츠는 5위를 유지했다. 지난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3연전을 싸늘이한 kt wiz는 7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삼성도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왔다. KIA 타이거즈는 9위에서 8위로 올라갔고, 2주 연속 10위에 그쳤던 한화 이글스도 9위로 파워랭킹 탈락에 성공했다. 그러나 ESPN은 “한화 투수진은 평균자책점 3.31(2위)로 잘 버티고 있다. 그러나 한화 타선은 팀 홈런 4개로 이 부문 최하위에 그칠 만큼 힘이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골 넣은 전북 현대 선수들의 ‘덕분에 챌린지’.

연합뉴스

K리그1 전세계 1900만명 시청

해외중계 시청자 1554만
유튜브·트위터 363만명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을 TV 중계방송과 인터넷으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가 19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8~10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1라운드 6경기를 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의 수가 1554만 7000명이다.

여기에 K리그1 공식 개막전의 유튜브 브와 트위터 중계 접속자(360만명)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1914만여명이 K리그1 개막전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축구 가뭄’ 속에서 유일하게 K리그가 개막하자 전 세계 37개국에 중계권이 팔려나갔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36개국이 중계권을 구매한 가운데 포르투갈 방송사

인 ‘채널 11’이 개막 직전 가세해 중계권을 구매한 국가는 37개국으로 늘었다는 게 프로연맹의 설명이다. 1라운드 6경기 기준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과 마카오에 영상을 중계하는 ‘K-BALL’ (6경기 중계)과 ‘PPTV’ (2경기 중계)의 시청자 수는 580만명에 달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인도권 방송사인 판코드(FANCODE)를 통해서 520만명의 시청자가 K리그1 개막전을 봤다. 한편, 지난 주말 치러진 K리그1 2라운드의 네이버 중계 동시 접속자 수는 3만4102명으로 집계됐고, K리그2는 1만3016명이었다. K리그1 2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울산 현대 경기는 최대 동시접속자 수 5만5931명에 누적 동시접속자 수가 90만574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제임스 “조던과 같이 켜를 때 흑인 예수 같아”

더 라스트 댄스 소감 밝혀

‘킹’ 르브론 제임스(36)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57·이상 미국)과 처음 같은 코트에 켜를 때의 느낌을 “마치 흑인 예수가 내게 다가온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제임스는 19일(한국시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미국에서 방영이 끝난 조던에 관한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를 본 소감을 밝혔다. 제임스는 “내가 조던과 한 팀으로 뛰었다면 나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던과 제임스는 NBA 역대 1, 2위 선수로 꼽히는 ‘전설’들이다. 최근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ESPN과 CBS스포츠가 선정한 역대 NBA

선수 순위에서 모두 조던이 1위, 제임스가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둘은 NBA에서 맞대결을 벌인 적은 없다. 조던이 2002~2003시즌을 끝으로 은퇴했고, 제임스는 2003~2004시즌에 데뷔했다. 다만 제임스는 “내가 16살이던 2001년에 조던과 함께 코트에 서 본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때 느낌은 마치 흑인 예수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제임스가 NBA 데뷔를 앞둔 2003년에도 나이키 캠프에서 조던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때 조던과 같은 팀이었는데 패한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흑인 예수(Black Jesus)’라는 표현은 사실 조던이 직접 자신을 가리키며 했던 비유다. 연합뉴스



“승리의 빛 될게요” 19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와 두산의 경기 1회말에서 NC 선발 라이트가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장 캐디피 물가상승률 대비 2배 ↑

평균 12만2900원 집계

국내 골프장 캐디피가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9일 발간한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국내 대중제 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평균 12만2900원이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1년 9만6400원에서 27.5%나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7%보다 2배가 높다. 국내 대중제 골프장 캐디피는 70% 이상이 12만원이다. 조사 대상 219개 골프장 가운데 157곳이 12만원씩 받고 있다. 61곳은 13만원이다. 14만원씩 받는 골프장도 1곳 있다. 2017년만 해도 캐디피를 13만원 받는 대중제 골프장은 1곳뿐이었지만 2018년 9곳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는 4곳 가운데 1곳은 13만원이 됐다. 캐디피 인상은 영입이 절되는 수도권 골프장이 주도했다. 수도권 골프장 70%가 캐디피를 13만원씩 받는다. 수도권 골프장 캐디피가 오르면 캐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 골프장도 캐디 인력 유출을 우려해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된다 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분석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8년 말 기준, 약 2만8256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골프장 캐디의 연평균 수입은 3천832만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쉴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쉴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쉴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표면 탄소화
수축과 변형이 없음

5분후 표면탄소화층
화염을 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연소 후

쉴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